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전모와 기획 배경*

李高恩*

I. 서론	III.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기획 배경
II.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전모	IV. 결론

• 국문초록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Hulbert Educational Series)는 1905년부터 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일련의 교과서들이다. 이 시리즈는 大韓帝國期에 근대화를 위해 官·民 차원에서 다양한 집단이 번역을 수행하며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자료로써 가치가 매우 크지만 그 전모는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필자는 선행 연구자들이 활용하지 않았던 사료를 보완하여 헐버트 시리즈의 출판을 담당했던 예수교서회 書目(1911, 1912)을 근거로 헐버트 시리즈 교과서 13종을 제시하고, 헐버트가 시리즈 제작을 위해 서회와 맺었던 계약서도 발굴했다. 연구 결과 이 시리즈는 헐버트 한 사람의 기획이었다기보다 그를 둘러싼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탄생한 결과물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또한 시리즈의 기획 배경을 네 가지로 분석했는데, 첫째, 헐버트가 조선 정부에 고용된 교사로서 學部의 교과서 출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근간으로 작용했다. 둘째, 1905년 개신교계 연합운동이 시행되면서 예수교서회가 연합출판사 역할을 맡았고, 서울과 평양에서 美國 北長老會 宣敎部和 監理會가 공동 주관했던 연합교육사업이 선교사들에게 교과서 집필의 계기를 제공했다. 셋째, 헐버트가 國民敎育會라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함께 한글 표기법 개정과 교과서에 쓰이는 과학기술용어의 통일방안을 의논했던 것도 중요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22S1A5B5A16050427).

** 전남대학교 인문학연구원 학술연구교수

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넷째, 험버트가 교과서 출판에 수익성 있는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윤을 추구하려 했던 개인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다.

주제어 : 험버트, 교과서 시리즈, 예수교서회, 국민교육회, 근대 지식, 출판 문화

I. 서론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Hulbert Educational Series)는 1905년부터 예수교서회(이하 서회)¹⁾에서 발행한 일련의 교과서들이다. 지리, 수학, 역사, 한국어(언문과 한문), 생물학, 지구과학 등 다양한 과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헐버트와 그의 동료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들이 그들의 학생, 어학 교사와 함께 저술 및 번역하여 배재학당, 경신학교, 정신여학교, 숭실학당, 숭실대에서 교재로 활용했다. 헐버트 시리즈의 의의는 대한제국기에 근대화를 위해 관·민 차원에서 다양한 집단이 번역을 수행하며 노력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는 데 있다. 1905년은 한반도에서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이 벌어진 뒤 중화주의가 무너지고 서구중심주의로 이행이 본격화되던 시기였다. 일제강점기에 서구 근대 지식이 일본을 경유하여 수입되기 이전부터 서구인들이 직접 한국에 소개했던 교과서는 어떤 지식의 내용을 전달하고 있었는가? 그것을 번역할 수 있었던 사람들은 누구였는가? 게다가 번역된 책들의 경우, 어떤 책에서 번역되었는지 원서를 추적하면 서구 근대 지식이 유입되던 다양한 경로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당시 지식 전파의 방식이 민주적으로 변화하던 모습도 읽어낼 수 있다.

이처럼 헐버트 시리즈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지니지만 선행연구에서는 그 전모를 구체적으로 밝혀내지 못했는데, 이는 그간 연구자들의 관심이 사료보다 개별 텍스트 분석에 머물렀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동안 헐버트 시리즈 개별 교과서에 관한 연구가 언어, 역사, 지리 등 분야에서 축적되어온 것을 망라해보면 연구자들의 관심이 『사민필지』에 편중되었음을 알 수 있다(학술논문23, 학위논문5, 단행본51).²⁾ 그 다음으로 많이 연구된 것은 『유몽천주』(학술논문9, 학위논문5, 단행본6)와 『진리편독삼죽경』(학술논문5, 학위논문2, 단행본2)으로, 개화기 언어 교재에 대한 연구자들의 높은 관심을 유추할 수 있다. 이외에 『대한력스』, 『미국스기』 같은 역사 교과서에 대한 연구는 미진한 편이다.³⁾ 『초학디지』의 경우 『사민필지』와 마찬가지로 근대

1) 1890년 조선성교서회라는 명칭으로 창립된 이후 대한성교서회, 대한예수교서회, 조선예수교서회 등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여기서는 헐버트 시리즈 실물 교과서에 기재된 대로 '예수교서회'라 한다.

2)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에서 검색한 결과이며 지면상 일일이 열거하지 않는다. <http://www.riss.kr/index.do>(검색일 2023.6.13.)

3) 강명희, 「韓末『대한력사』의 分析 研究」, 이화여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홍정훈, 「한말 개신교 학교의 민족의식 교육-역사, 지리, 국어 교과목을 중심으로」, 울산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지리 교과서이지만 훨씬 적은 관심을 받았다.⁴⁾ 수학 교과서 『산학신편』도 간략히 소개되었을 뿐 본격적으로 연구되지 않았다.⁵⁾

헬버트 교과서 시리즈에 대해 보다 총괄적으로 접근한 연구자는 허재영이 대표적이다. 그는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 시기(1880~1894)의 학교와 교과서를 연구했고, 현존하는 『스민필지』 판본 4종을 비교하여 순 한글 사용 및 고유어·외래어의 한자 표기 방식 등 어문 의식의 변화를 추적했다.⁶⁾ 최근에는 헬버트 시리즈 교과서 실물 5종의 특징을 세 가지로 분석했는데 첫째, 학부 편찬 교과서에 비해 전문성을 확보했다는 점, 둘째, 지식 보급의 수단으로 순 국문(언문)을 사용하고 용어 정리의 필요성을 주장했다는 점, 셋째, 교수학습법을 고려한 교과서라는 점으로, 이러한 특징은 헬버트 시리즈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다.⁷⁾ 하지만 허재영은 헬버트 시리즈의 저술에 참여한 사람들이 모두 개신교 관련 인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1차 사료를 참고하지 않았다는 한계가 있으며, 따라서 예수교서회사 선교부 등 개신교계 기관 차원에서 이루어진 제도적 개입에 대한 성찰이 부족했다.

헬버트 시리즈 과학 교과서에 관한 연구들도 등장하고 있다. 이는 2018년부터 숭실대 HK플러스 사업단에서 평양 숭실학당의 근대 교과서 연구를 진행하며 한국기독교박물관에 소장된 자료를 영인하여 “한국 기독교와 근대”, “선교사와 근대 대학” 등 항목으로 디지털 아카이브를 구축 중이기 때문이다. 이로써 박물관 깊숙이 잠자고 있던 자료들이 연구자 및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고 있다. 일례로 오지석은 평양 숭실대학의 과학교육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고찰하며 일련의 과학 교과서를 소개하는 연구에 헬버트 시리즈의 3종(『심리학초권』, 『식물도설』, 『천문략히』)을 포함했다. 각 교과서의 내용 및 저역자를 소개하고, 숭실대학에서 이 책들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논문, 2007에서 『대한력스』와 『초학디지』를 다루었다.

- 4) 앞의 홍정훈 석사학위논문; 서신혜, 「지리교과서 스민필지(士民必知)와 초학디지(初學地誌)」, 『문헌과 해석』 61, 태학사, 2012, 90~108면.
- 5) 한영균, 「대한제국기의 산학(수학) 교재류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각 한국학연구소, 2016.
- 6) 허재영,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1880~1894)의 학교와 교과서 연구」, 『한국언어문학』 87, 한국언어문학회, 2013, 517~545면; 『스민필지(士民必知)』에 나타난 어문 의식과 근대 지식의 변화, 『한국언어문학』 109, 한국언어문학회, 2019, 61~90면.
- 7) 허재영, 「근대 지식 수용 과정에서 헬버트 시리즈 교과서의 의의」, 『어문학』 147, 한국어문학회, 2020, 239~262면.

등을 설명하여 수용 양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지만 베어드 부부가 번역한 교과서들이 어떻게 헬버트 시리즈에 포함되었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⁸⁾ 이처럼 개별 자료 해제·소개에 그치거나 선교사 개인의 번역 활동 또는 평양 숭실학당의 교과서 편찬의 일환으로 소개될 뿐, 헬버트 시리즈에 관한 전반적 고찰은 시도되지 않았다.⁹⁾

이 외에 헬버트기념사업회 회장 김동진은 헬버트가 한성사범학교 시절부터 교육을 위해 교과서 시리즈 15종을 기획했다는 점과 한글 사용 활성화에 기여한 사실을 강조하며 『초학디지』, 『대한력사』를 언급했다.¹⁰⁾ 이 책은 헬버트가 뉴욕 헤럴드지와 가졌던 회견 전문 같은 희귀 1차 자료 다수를 학계에 제공한다는 점에서 기여하는 바가 크지만, 헬버트 개인 자료에만 의존하여 시리즈의 전모와 배경을 총괄하지 못한 점이 아쉽다.

본 논문은 이상의 논의를 기반으로 헬버트 시리즈에 대한 총체적 이해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을 헬버트 개인이 아니라 교과서 시리즈로 설정하며, 개별 교과서 뿐 아니라 발행을 주관한 기관의 사료에 기반하여 번역 및 저술 주체와 동기, 방식을 고찰하고, 원문-번역 텍스트의 상호 관계에 주된 관심을 둔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 헬버트라는 인물 개인에 초점을 두거나 교과서 내용에 집중한 나머지 미처 논의하지 못했던 새로운 면모를 드러낼 것이다. 우선 논문의 앞부분에서는 어떤 책이 헬버트 시리즈에 포함되었는지 파악하기 위해 발행을 담당했던 예수교서회의 연례보고서를 조사한다. 헬버트 시리즈 기초자료도 발굴하여 교과서 13종 중 실물 12종을 수집할 뿐 아니라 번역된 교과서의 경우 원서(영문 또는 한문)까지 수집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었다. 논문의 뒷부분에서는 누가 헬버트 시리즈의 기획에 관여했는지, 어떤 배경에서 기획되었는지를 다각적으로 고찰한다. 참고자료로 미국측 자료와 한국측 자료를 모두 활용하고자 노력했으며, 구체적으로 예수교서회 및 미국북장로회 선교부의 연례보고서, 독립기념관에 소장된 헬버트의 서신과 영인된 회고록

8) 오지석, 「근대전환기 기독교계 학교 과학교과서 이해-평양 숭실대학의 과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361~374면.

9) 애니 베어드 저, 윤정란 해제, 『식물도설』, 선인, 2020; 애니 베어드 저, 오선실 해제, 『생리학초권』, 선인, 2020; 윌리엄 마틴 베어드 저, 심의용 해제, 『텐문략희』, 선인, 2020; 오선실, 「근대전환기 서구 근대 생리학의 수용과 변용-애니 베어드 역 『생리학초권』(1908)과 안상호 역 『신편생리학교과서』(1909)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60,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2021, 343~368면.

10) 김동진, 『파란논의 한국혼 헬버트』, 참좋은친구, 2010, 88~90면.

(*Echoes of the Orient*), 『한국평론』(*Korea Review*), 『한국사』(*Hulbert's History of Korea*), 〈大韓帝國官報〉, 〈高宗實錄〉, 〈皇城新聞〉, 〈大韓每日申報〉를 활용하였다.

II.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전모

헐버트가 1905년과 1908년 사이 15권의 교과서를 간행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어떤 책이 시리즈에 포함되었는지 구체적으로 밝혀지지 않은 채 추정에 그칠 뿐이었다.¹¹⁾ 헐버트 시리즈의 전모는 1911년 예수교서회에서 발행한 書目[이하 서목(1911)]과 1912년 서목[이하 서목(1912)]에 구체적으로 등장한다(〈그림 1〉 참고).¹²⁾ 이 서목(1911)에 기초하여 필자가 실물 교과서들을 수집한 뒤 속지에 기록된 내용을 참고해서 정리한 것이 〈표 1〉이다. 시리즈 일련번호와 실물 간행연도를 기준으로 표를 작성했기에 각 교과서의 초판 연도는 기록하지 않았다는 점을 미리 밝힌다.

No.	TITLE AND DESCRIPTION.	Price per copy.
306	*"Arithmetic, Elementary Volume." paper 산학신편188 pp. translated and adapted from Wentworth's "Elementary Arithmetic" by Rev. E. H. Miller, assisted by O Chung Kyung. (Hulbert series).	.30
307	* do. do. do. boards40	
308	*"The Christian Three Character Classic." 삼자경152 pp. by Rev. Griffith John, D.D. Adapted for use as a Korean text-book and translated by Rev. S. A. Moffett, D.D. Cloth. (Hulbert series)	.30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Catalogue of Books and Tracts*, 1911, p.48

〈그림 1〉 서목(1911)의 헐버트 시리즈 목록

11) 허재영, 앞의 2020 논문, 241면.

12)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Catalogue of Books and Tracts*, Seoul: The Tract House, 1911, pp.47~49;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Catalogue of Books and Tracts*, Seoul: The Tract House, 1912, pp.49~50. 이 서목은 예수교서회에서 공식 발행한 연례보고서에 부록 격으로 수록되었으며, 현재 1911년본은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1912년본은 예일대 신학대학교 도서관 고문서실에 열람할 수 있다.

〈표 1〉 헐버트 시리즈 목록(총 13종)

번호	실물 간행연도	제목	영문	한문	저자	번역자
1	1907/2판	초학디지	Elementary Geography	初學地誌	Mrs. E.H.Miller	X
1	1908	대한력스	History of Korea	大韓歷史	Rev. H.B. Hulbert, Prof. O Seung Kon	X
2	1906/2판	스민필지	Geographical Gazetteer of the World	士民必知	Rev. H.B.Hulbert	X
2	1908	식물도설	Botany for Young People and Common Schools	植物圖說	Dr. Asa.L.Gray	Mrs. A.L.A. Baird 차리석 교정
3	1907	미국스기	Elementary History of the United States	美國史記	미상	Mattie H.Miller
3	1909/3판	유몽천즈	The Thousand Character Series Korean Reader No.I	牖蒙千字	기일 저 (Rev.James S. Gale) 이창직 술	X
4	1907/2판	유몽속편	Korean Reader No.IV	牖蒙續編	Rev. James S. Gale	X
4	1908	턴문략히	Popular Astronomy	天文略解	Joel D. Steele	W.M.Baird, 평양숭실대 학생
5	1908	싱리학초권	The Human Body and its Health	生理學初卷	William T. Smith M.D.	Mrs. W.M. Baird 리근식 교정
5	1907	산학신편초등	Arithmetic: New Series Elementary Volume	算學新編	George A. Wentworth	(Adapted by) Rev. E. H. Miller, O Cheung Kyeng
7	1908/2판	산학신편고등	Arithmetic: New Series Advanced Volume	算學新編高等	미상	필하와 저 (Mrs. Alex A. Pieters) 신해영 술

9	1908	진리번독삼 죽경	The Christian Three Character Classic	眞理便讀三字經	Rev. Griffith John	(Adapted by) Rev.Samuel A.Moffett
?	미상	계오문답	Primer of Physiography	啓悟問答	Dr. Francis L.H.Pott	Mrs. J.P.Campbe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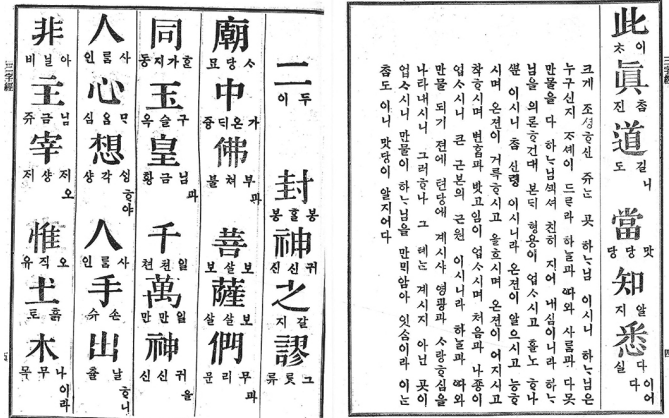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구성과 체계는 1905년부터 1908년 전후로 그 수가 점차 증가했다가 1912년까지 감소하는 변화를 보인다. 1905년 서회 보고서에 제일의 국한문 및 한문 교재 4종(유몽천자/유몽속편)과 에바 필드(Eva H. Field 필하와, 1869~1932)¹³⁾의 수학 교과서 2종, 캠벨 부인의 『계오문답』이 발행되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이듬해 1906년 보고서에는 앞서 언급한 『유몽천자』, 『유몽속편』, 『계오문답』 외에도 『초학디지』 인쇄가 완료되었으며, 『식물도설』, 『진리번독삼죽경』은 원고가 준비된 상태였지만 자금이 부족해 인쇄 보류 중이었고, 『산학신평초등』으로 보이는 원고(Primary Arithmetic)는 심사 대기 목록에 올라 있었다.¹⁴⁾ 이를 보면 1905~1906년 사이에 교과서들이 점차 증가하던 추세가 보인다. <표 1>에서 몇몇 교과서의 일련번호가 중복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아마도 교과서 종목이 증가하면서 1908년경 헐버트 시리즈의 일련번호 체계가 재편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표 1>에서 교과서가 총 13종으로 파악되지만, 서목(1911)에 기재된 것은 12종뿐이며 서목(1912)에서 다시 10종으로 줄어든다. 교과서 종목이 감소한 이유는 두 가지인데, 첫째로 『산학신평고등』이 서목(1911)에서 더 이상 헐버트 시리즈로 분류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1908년 판본 속지에 “Hulbert Educational Series, No.7”라고 쓰여있지만 이후 탈락된 것이다. 둘째, 『미국스괴』와 『계오문답』이 서목(1912)에서 아예 사라졌다. 어떤 이유로 이 두 교과서의 발행이 중단되었는지, 왜 『산학신평고등』이 시리즈에서 탈락되었는지는 알 수 없다.

13) 1908년에 미국 북장로회 선교사 피터스(Alexander A. Pieters)와 결혼했으므로 책에 “Mrs. Alex A. Pieters”라는 이름을 사용했다. 내한선교사 편찬위원회, 『내한선교사사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1261면 참고.

14)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앞의 책, pp.22~27.

시리즈물 13종의 저술 및 번역 양상을 살펴보면 5종이 저술되고 나머지 8종은 번역된 것으로 보인다. 번역서의 경우 언어로 구분하자면 『계오문답』, 『진리변독삼자경』은 중문 원서를 번역한 것이고 『턴문략히』는 영어 원서가 중국에서



〈그림 2〉 마펏 역, 『진리변독삼자경』(1908), 4~5면

이미 번역되었기 때문에 영문본, 중문본을 모두 참고하여 번역된 특이한 경우다. 나머지 5종은 영어 원서를 번역한 것이다. 또한 번역 양상도 원문을 충실하게 번역한 것(『식물도설』, 『싱리학초권』)과 편역 또는 번안된 것(『턴문략히』, 『산학신평초등』, 『산학신평고등』, 『진리변독삼자경』, 『미국스기』)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서 편역이란 책 일부를 한국 실정에 맞게 발췌 번역한 것이고, 번안이란 편역에 번역자의 저술까지 더한 것을 말한다.¹⁵⁾ 『산학신평고등』 서문에서는 “이 산학을 서국 사람들 배우는 책에 있는 것을 번역하였으나 그러나 대한 사람의 매매하는 형편과 풍속에 합당하게 만든 것이 많으며…… 대강 번역도 하고 저술도 할 뿐인 듯……”이라고 하여 이 책이 번안되었음을 밝혔다. 번역과 번안을 구분하기 애매한 경우도 있다. 예를 들어 『진리변독삼자경』은 속지에 “Adapted for use as a Korean textbook”이라고 쓰여있는데, 원문의 한자 아래 한글 훈독을 추가하고, 각 장 마지막에 한쪽 분량의 순 한글 번역문을 추가하였으므로 번역 또는 번안에 해당되는 것으로 본다. 『미국스기』는 어떤 책에서 번역된 것인지 원문을 찾지 못하여 번역 양상을 알기 어려우나, 서문 끝부분에 “연동 합성중학교 교사 밀부인 역찬”이라고 기록한 것을 보아 번안된 것으로

15) 예를 들어 『턴문략히』 속지에는 “Steele’s Popular Astronomy, with Additions from other works translated and compiled”라고 되어있다. 『산학신평초등』 속지에 “Translated and Adapted from Wentworth’s Elementary Arithmetic”이라 쓰였고, 서문에서 “이 책을 편역하여 산학의 확실한 근원을 가르치려 함이니”라고 밝혔다.

로 추정한다. 『계오문답』의 경우 중국에서 발행된 한문 서학서를 번역한 것이 확실하지만 현재 유일하게 실물을 찾지 못해 번역 양상을 파악하지 못했다.¹⁶⁾ 본고에서는 우선 시리즈의 전모와 배경을 파악하는 데 의의를 두고, 향후 각 교과서의 내용과 저·역자에 대해, 저술 및 번역 양상과 수용에 대해 후속 연구를 이어갈 계획이다.

Ⅲ. 험버트 교과서 시리즈의 기획 배경

1. 學部の 교과서 발행

조선 정부는 근대식 학제 도입을 위해 1880년대부터 노력해왔다. 동문학, 기기창, 원산학사 등 각종 학교가 설립되었지만 아직 ‘교과’와 ‘교과서’에 대한 확고한 지식이 부족하여 주로 중국에서 책을 수입해 사용했다.¹⁷⁾ 그러다 1894년(고종31년) 갑오개혁을 시행하면서 의정부 이하 6조 체제를 8아문 체제로 바꾸고 오늘날의 교육부라 할 수 있는 學務衙門을 신설했다. 그 아래 편집국을 두고, 5명(참의 1, 주사 4명)이 국문 철자와 외국문 번역, 교과서 편집 등의 일을 맡게 했다.¹⁸⁾ 그로부터 일년 뒤, 다시 학부 관제를 개정 반포하면서 제7조에 편집국이 교과서의 편집과 번역, 검정에 관한 사항을 맡도록 하였고, 특별히 이 일을 담당하는 위원을 학부대신에게 소속시켰다.¹⁹⁾ 이후 1899년~1904년까지 李圭桓이 편집국장을 역임했고, 1905년 7월에 다시 학부 관제를 개정하면서 일본인 다카하시 도루(高橋亨), 와타세 쓰네토시(渡瀨常吉)가 교과서 편찬을 담당했던 것으로 보인다.²⁰⁾ 같은 해 11월 을사늑약이 체결되었다.

16) 서목(1911)에 “Translated from the Chinese of Dr. F. L. H. Pott by Mrs. J. P. Campbell, (2nd Edition), Illustrated.”라고 기록되었다.

17) 허재영, 앞의 2013 논문, 517~545면.

18) 『高宗實錄』 31, 1931.6.28. “學務衙門: 一, 學務衙門, 管理國內教育學務等政. …… 一, 編輯局, 掌國文綴字, 各國文繙譯及教課書編輯等事. 參議一員, 主事四員.”

19) 『高宗實錄』 33, 1932.3.25. “勅令第四十六號, 學部官制, 裁可頒布. …… 第七條, 編輯局에서는 敎科圖書의 編輯繙譯及檢定에 關한 事項.” 이때 처음 學部 編輯局長을 맡은 것은 李庚植이었다.

20) 『高宗實錄』 1942.7.11. “議政府, 因度支部請, …… 學部敎科冊編撰日本人高橋亨 渡瀨常吉手當金六百三十三元 ……”

헬버트는 학부가 신설되기 전부터 관립학교 육영공원(1886~1891)의 교사로 고용되었고, 이후 학부 소속으로 한성사범학교(1897~1900), 관립중학교(1900~1905)의 교사직을 역임하면서 교과서 발행에도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그 계기는 『스민필지』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한글본 『스민필지』(1891)를 조선 의정부 주사 백남규와 이명상이 한문으로 번역하여 1895년에 의정부 편사국에서 발행했던 것이다. 헬버트는 수학교과서도 학부에서 발행한 듯하다. 1900년 3월 학부를 방문해 “아주 쾌활해 보이는 새 장관”에게 교과서 준비 도움을 요청했고, 그가 저술한 수학 교과서를 학부에서 인쇄했다고 한다.²¹⁾ 게다가 ‘필하와’로 알려진 에바 필드와 함께 『산학신편고등』을 저술했던 申海永(1865~1909)이 1906년 학부 편집국장으로 임용된 사실도 헬버트 시리즈와 학부가 교과서로 상호 밀접하게 연관된 배경을 드러낸다.

하지만 학부에서 발행했던 교과서와 헬버트 시리즈 교과서는 언어와 내용에서 지향하는 바가 달랐다. 헬버트 시리즈 교과서들은 국한문을 교수하기 위해 집필된 『유몽천자』·『유몽속편』·『진리편독삼자경』을 제외하고는 순 한글로 쓰였고, 일부 고유명사에 한문을 병기하더라도 한글을 먼저 쓴 뒤 괄호 안에 한문을 넣었다. 반면 학부에서 발행한 교과서는 국한혼용문으로 쓰였다. 수학 교과서를 예로 들면 1895년 학부에서 발행한 『近易算術書』는 국한혼용문 세로쓰기가 적용된 반면, 헬버트 시리즈의 『산학신편고등』은 순한글 가로쓰기가 적용되었으며, 마침표 같은 문장부호도 사용되었다. 중요 개념어의 경우 괄호 안에 한자와 영어까지 표기한 것이 눈에 띈다(〈그림 3, 4〉 참고). 개화기 국내에서 발행된 수학 교재가 32종에 달했는데, 미국인 선교사가 관련한 5종만 순 한글로 쓰였고 나머지는 모두 국한혼용문으로 쓰였다.²²⁾ 이 5종 모두 헬버트 시리즈 수학 교과서의 이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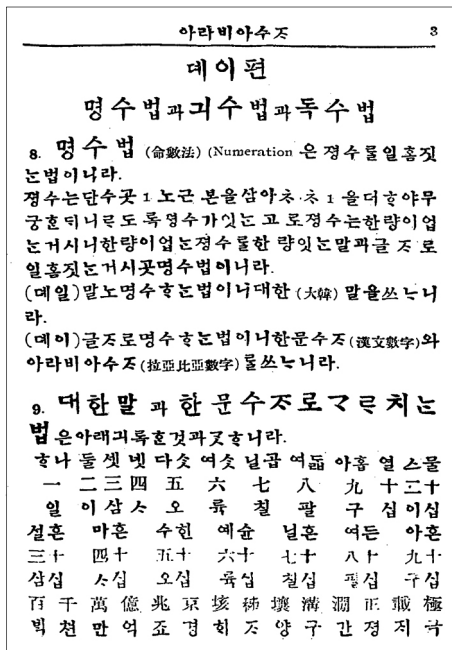
학부에서 발행했던 교과서는 내용 면에서도 헬버트 시리즈와 차이가 있었다. 갑오개혁 이후 발행된 학부 교과서들은 왕에 대한 충성을 강조했고,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로는 근대적 국민의 소양이자 의무로써 국가에 대한 헌신을 강조했다.²³⁾ 반면

21) 헬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1900 March), 독립운동가자료헬버트서신류 3-008785-225; (1900 Aug.12) 3-008785-230; (1900 Dec.16) 3-008785-234. 이하 서신은 <https://search.i815.or.kr>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헬버트에서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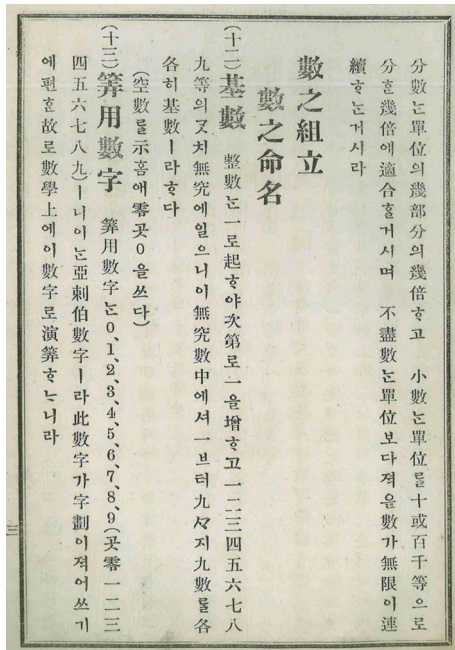
22) 한영균, 앞의 논문, 231~232면.

23) Leighanne Kimberly Yuh, “Loyalty to the King and Love for Country: Confucian Traditions, Western-Style Learning, and the Evolution of Early Modern Korean Education, 1895~1910,”

선교사들이 저술한 헐버트 시리즈는 창조론에 근거한 기독교 교육과 미국 공립학교의 실용기술 교육이 혼합된 내용이었고,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민주적 성격도 강했다. 이것은 헐버트가 육영공원에서 교수할 때부터 추구했던 교육 방향이었지만 조선 정부 관료들은 그러한 미국식 학제를 수용하기 어려웠다. 조선 양반들은 전통적으로 노동을 경시하며 유교 경전만 공부하는 것을 특권으로 삼는 계층이었다. 노동하지 않고 형이상학적 공부에 몰두하는 삶을 통해 다른 사회계층과 구분되려는 속성을 지녔기에 미국인 교사들이 추구했던 실용 교육을 중인 계층이나 해당하는 저급한 것으로 보았고, 민주적이고 평등한 교육제도의 시행을 환영할 이유가 없었던 것이다.²⁴⁾



〈그림 3〉 필하와 · 신해영, 『산학신평등도』(1908)



〈그림 4〉 학부편집국, 『近易算術書上』(1896)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19, No.2, 2019, pp.189~212.

- 24) Leighanne Kimberly Yuh, "The Royal English Academy: Korea's First Instance of American-Style Education and the Making of Modern Korean Officials, 1886~1894,"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15, No.1, 2015, pp.119~120.

따라서 헐버트는 조선 정부 관료들을 신뢰하지 않았다. 그는 정치적 부침에 따라 달라지는 조선 정부의 교육정책을 비판했고, 장기적인 안목에서 진정한 배움을 목표로 하기보다 관직을 얻으려고 영어 학습에만 혈안이 된 양반들도 비난했다. 그러므로 헐버트가 보기에 조선에서 필요한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가장 바람직한 인물은 외국인 선교사들이었다. 정치권 밖에 있으면서 한국인을 깊이 동정하고, 한국에 오래 거주하여 한국인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이다.²⁵⁾ 그리고 한국의 교회를 형성하는 중산층(middle class)이 이러한 변화와 운동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다. 외국인, 즉 선교사들이 운영하는 학교에서 한국인 교사를 키워내고 고용해서 적절한 수입을 얻게 하면 투자한 만큼의 역할을 해낼 것이었다.²⁶⁾

이러한 차이와 정부 정책으로 인해 학부와 선교사들의 교과서 발행은 서로 합의점을 찾기 어려웠던 것으로 보인다. 1906년에 통감부의 교육정책이 시행되었고, 사범학교령 제8조에 의하면 사범학교의 교과서는 학부대신(이완용)의 인가를 받아야 했다.²⁷⁾ 하지만 1907년 윤치호가 학무국장이 된 후 변화가 있었던 듯하다. 『皇城新聞』에 의하면 “각 예수교학교와 학부가 상관이 없더니 학무국장 윤치오씨가 각 목사와 협의하여 …… 교과서적도 학부에서 일일지급하여 과목에 부적당한 것이 있으면 각 목사가 연구평론하여 개정하기로 협성하였다.”²⁸⁾ 교과서와 관련하여 학부에서 개신교 목사(아마 선교사)들의 협조를 구한 듯하다. 여기에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가 관련되었는지 파악하지 못했으나 1911년 조선교육령과 사립학교규칙이 시행되면서 총독부에서 교과서 편찬과 검정을 맡았으므로 학부와 개신교 목사들의 협조가 지속되지 못했을 것이다. 앞서 헐버트 시리즈의 종목이 1911년, 1912년간에 감소했다고 했는데, 총독부에서 시행한 교육정책 때문이었다고 생각된다.

25) Hulbert, “The Educational Needs in Korea,” *The Korea Review* Vol. 4, 1904, p.538.

26) Hulbert, 앞의 책, p.451.

27) 「勅令第四十一號 師範學校令」, 『大韓帝國 官報』, 1906.8.31. “第八條 師範學校의教科書는學部大臣의認可를經ん것으로用함이라”; 이성전 저, 서정민, 가미야마 미나코 역, 『미국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3장 참조.

28) 「學部和 教會聯絡」, 『皇城新聞』, 1908.2.29.

2. 개신교계의 연합운동과 예수교서회

〈표 1〉에서 헐버트 교과서 시리즈를 저술한 선교사들을 보면 대다수가 미국 북장로회 소속 선교사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러한 조합이 나타나게 되었을까? 우선 1905년 개신교의 감리교와 장로교가 합동하여 한국 복음주의 연합선교부 공의회(The General Council of Protestant Evangelical Missions in Korea)가 결성되어 다양한 연합활동을 추진했던 정황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²⁹⁾ 당시 해외에서도 개신교계의 에큐메니컬 운동이 본격화되었고, 20세기 초 교육사업과 피선교국의 개신교 사업에서 강력하게 연합이 추진되던 가운데 서울과 평양에서도 연합학교 설립이 추진되었다.³⁰⁾

헐버트 시리즈에 참여한 저·역자들, 즉 베어드 부부와 마펫, 밀러 부부와 게일(James S. Gales, 1863~1937)은 서울과 평양의 연합학교들을 대표하는 인물들이었다. 먼저 서울의 상황을 보면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경신학교와 북감리회 선교부에서 운영하던 배재학당이 통합되어 1905년에 연동 합성중학교가 신설되었다. 여기서 밀러(Edward H. Miller 밀의두, 1873~1966)는 수학을 가르치고 밀러 부인(Mattie H. Miller, 1873~1969)은 지리와 영어를 가르쳤는데, 이들이 당시 학교 수업을 위해 편찬했던 교재가 『초학디지』(1906), 『미국사기』(1906), 『산학신편초등』(1907)이었다. 게일은 이 학교 바로 옆에서 연못골교회(연동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었고, 한글 및 한문 교재인 『유몽천자』(1903) 시리즈를 발행했다. 이 외에도 에바 필드는 미북장로회 의료선교사로서 제중원과 세브란스병원에서 사역하면서 신해영과 함께 『산술신편데이권』(1902), 『산술신편데이권』(1905)을 저술했는데, 이 둘을 합본한 것이 『산학신편고등』(1908)이었다.³¹⁾

서울과 마찬가지로 평양에서도 장로회·감리회의 남·여 중학교가 통합되었고, 1906년 10월 崇實大學(The Union Christian College)이 설립되었다.³²⁾ 숭실대학은 설립자 윌리엄 베어드(William Baird)의 교육이념 아래 학생들의 자조와 자급을 위한 실습 훈련을 강조하는 가운데 과학교육이 이루어졌고, 1900년쯤부터 교과서 번역

29)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I』, 기독교문사, 2011, 167면.

30) 이성전 저,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공역, 앞의 책, 78~79면.

31) 한영균, 앞의 논문, 216~218면.

32) 한국기독교역사학회, 앞의 책, 167면.

과 제작을 추진하여 미국 중등 교과서를 조선의 실상에 맞추어 편역하고 일본 요코하마 북음인쇄소에서 인쇄했다. 당시 베어드가 천문학 수업을 위해 학생들과 함께 번역했던 교과서가 『턴문략해』(1908)였고, 아내 애니 베어드(Annie L. A. Baird)는 생물학 교과를 담당하며 『싱리학초권』(1908)과 『식물도설』(1908), 『동물학』(1906)을 번역했다. 이때 교과서 제작에 송실중학 졸업생들과 송실대 학생들(차리석, 한준겸, 한승권, 안국보, 이근식, 김인식 등)이 도움을 주었다.³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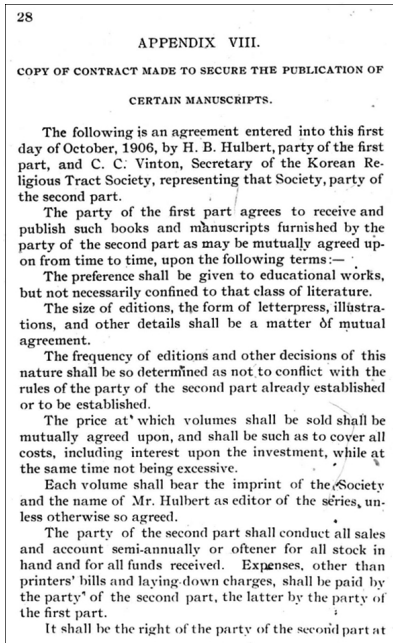
그런데 북장로회 선교사들은 자신들이 집필한 교과서가 헐버트 시리즈에 포함되리라는 것을 모른 채 각자 가르치던 학교에서 사용하기 위해 교과서를 저술했을 뿐이었다. 베어드, 게일, 밀러는 1903년부터 경신학교와 송실학교의 교과과정 설계를 담당하고 있었다.³⁴⁾ 1907년 북장로회 보고서에는 편집위원회(Editorial Committee)가 『초학지지』, 『식물도설』, 『턴문략해』, 『산학신편초등』과 『산학신편고등』, 『미국사』, 『삼자경』의 발행상황을 보고했지만 헐버트 시리즈에 관한 언급은 전혀 없으며, 이 선교사들은 히브리어 교재, 영국사, 만국통감 등 다른 교과서들도 추가적으로 집필 중이었다.³⁵⁾ 특이한 것은 당시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교과서 출판비를 따로 책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았다는 점인데, 학교 운영을 위한 건물 구입비, 선교사 및 한국인 교사들의 인건비 등을 부담하기에도 빠듯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헐버트 시리즈를 저술한 사람들, 즉 선교사와 번역조사들의 인건비는 북장로회 선교부에서 부담한 셈이다. 이에 대해서는 마지막 절에서 다시 설명할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1906년부터 예수교서회가 장·감 연합선교부 공의회의 연합출판사 운영을 맡게 되었고, 헐버트는 그해 10월 1일, 시리즈 발행을 위해 서회와 계약서를 작성했다(〈그림 5〉 참고). 당시 헐버트는 고종의 특사로 미국에 파견되었다가 1906년 6월 다시 내한한 상황이었다. 그가 회고록에서 “나는 『한국평론(Korea Review)』의 출판과 교과서 시리즈 출판에 관여하기 위해 한국에 돌아왔다. 교과서는 선교사들이 설립한 학교뿐 아니라 한국인들이 설립한 사립학교에서도 사용될 것이었

33) 이성전 저, 앞의 책, 77면; 오지석, 「근대전환기 기독교계 학교 과학교과서 이해-평양 송실대학의 과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 21』 1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369면.

34)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3, p.41.

35)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7, pp.44~45.



〈그림 5〉 서회-헐버트간 계약서 일부

하던 배경을 설명하면서 서회가 신지식에 목마른 한국인들의 수요를 다른 출판사보다 더 근본적으로 채워줄 수 있다고 자신하면서도, 자금이 부족해 원고를 빨리 인쇄해 내지 못하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헐버트가 교과서를 위해 투자하겠다는 결정을 크게 반겼다. 아래 인용문은 당시 서회의 입장을 보여준다.

교육서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키는 일과 관련하여, 지난해 우리 이사회 일원인 헐버트라는 좋은 친구를 찾았습니다. 그는 한국 정부 학교 교사였는데, 현재 대부분의 시간을 교과서 제작과 발행에 쏟고자 합니다. 그는 서회의 출판 목록에서 서회가 제공할 수 있는 교육용 도서를 상호 동의하에 “헐버트 교과

다”라고 한 것을 보면, 헐버트 시리즈 교과서는 기독교 학교를 넘어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유통될 것이었다.³⁶⁾ 계약서 전문을 보면 헐버트가 ‘갑(the first party)’으로서 교과서 시리즈의 인쇄 및 발행비를 부담하고, 서회는 ‘을(the second party)’로서 나머지 비용을 부담하며 자체 규정에 따라 시리즈의 발행, 재고 관리, 유통, 회계를 담당하기로 합의 계약했다.³⁷⁾ 비영리 출판기관으로 출발해 초기부터 자금난에 시달렸던 서회는 외부에서 기금을 받아 서적을 인쇄한 뒤 판매하는 ‘위탁판매’ 방식을 취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헐버트 시리즈가 그런 사례였다.³⁸⁾

당시 서회 보고서를 기록했던 빈튼(Charles C. Vinton, 1859~1936)은 한국 각지에 학교들이 우후죽순 설립되어 교과서 수요가 급증

36) Hulbert, *Echoes of the Orient*, 선인, 2000, p.277.

37)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06*,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7, pp.28-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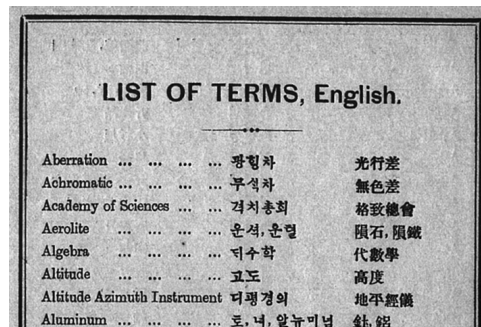
38) 이혜원, 「조선성교서회의 초기 간행물 재고찰」, 『한국교회사학회지』 55, 한국교회사학회, 2020, 508~510면, 서회의 외부기금과 위탁판매에 대해 참고.

서 시리즈”로 발행하되 서회를 발행자(imprint)로 하기를 원합니다. 이미 2년 전[1905]에 이 계약조건으로 밀러 부인의 지리서[초학지지] 원고를 인쇄했고, 현재 베어드 부인이 준비한 식물학 원고[식물도설]도 인쇄소로 보낸 상태입니다. 이 계약에 의하면 헬버트 시리즈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은 서회가 취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쪽[교과서] 분야로 사업을 지속할 수 있다면 어떤 조건이든 우리 쪽에 막대한 이익입니다. 이 분야를 돕겠다고 나선 헬버트 씨에게 매우 감사하고 있습니다.³⁹⁾ [필자가 번역 및 밑줄 표기함. 괄호 [] 안은 역자 주]

이것을 보면 헬버트 시리즈의 탄생은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를 반영하여, 즉 을사늑약 체결 직후 한국인들의 신지식 갈구를 배경으로 양질의 기독교 교양서를 공급하려던 선교사들의 입장과 연합출판사로 기능하게 된 예수교서회, 그리고 한국에서 20여년의 교육 경력을 쌓았던 헬버트가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교과서 사업을 시작하려던 입장이 만나 성사된 사건이었다.

3. 國民教育會와 교류

헬버트 시리즈의 과학 교과서는 책마다 한글-한문-영어로 주요 用語索引을 첨부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그림 6〉 참고). 이처럼 용어색인을 첨부한 것은 용어의 표준화를 시도했던 것이며, 학부 발행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진보를 보기가 어려웠다.⁴⁰⁾ 그렇다면 이 색인은 헬버트 시리즈의 저·역자들이 공동으로 제작했던 것일까? 동시대 다른 교과서에도 공유되었을까? 이 용어색인은 한글의 국어화라는 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하며, 헬버트 시리즈가 ‘국민교육회’라는 애국계몽운동단체와 연



LIST OF TERMS, English.			
Aberration	...	광행차	光行差
Achromatic	...	무색차	無色差
Academy of Sciences	...	격치총회	格致總會
Aerolite	...	운석, 운철	隕石, 隕鐵
Algebra	...	대수학	代數學
Altitude	...	고도	高度
Altitude Azimuth Instrument	...	대평경의	地平經儀
Aluminum	...	로, 녀, 알루미늄	鋁, 鋁

〈그림 6〉 『뎨문략히』 (1908)

39)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앞의 1907 책, pp.9~10.

40) 허재영, 앞의 2020 논문, 253~257면.

결되는 지점이다.

국민교육회는 “일반 국민의 교육을 면려하여 지식을 발달시키고 완고의 폐습을 혁폐하며 전도의 목적을 관철”하려는 목적으로 1904년 8월 24일 연동교회에서 이원궁, 이준, 유성준, 전덕기 등에 의해 창립되었다.⁴¹⁾ 한성감옥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전직 정부 관리들이 연동교회에 출석하다가 담임목사 게일과 함께 설립한 단체였다. 초대 회장 李源兢(1849~1919)은 내무아문 참의, 법부 협판 등을 역임한 관료로서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으며 국민교육회 회칙에 ‘기도와 전도’를 의무사항으로 표기할 정도였다.⁴²⁾ 반면 1906년 초부터 2대 회장을 맡았던 李儼(1859~1907)은 기독교단체로 머물기보다 국민계몽과 대중화에 힘쓰기를 원했고, 비기독교인의 참여를 장려하여 급속히 회원수가 증가하였다.⁴³⁾ 하지만 이준이 헤이그특사 사건에 연루되자 국민교육회는 크게 위축되었고, 결국 그가 순국했던 1907년 말 해체되어 흥사단으로 흡수되었다.⁴⁴⁾

헐버트는 자신의 글에서 국민교육회를 구체적으로 언급했다. 먼저 『한국사』에서 당시 국민교육의 부재가 한국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면서 “그 때문에 다수의 외국인들이 국민교육회(the Educational Association of Korea)에 가입했는데, 그 목적은 한국 학교에 적합한 교과서를 제공하는 한편 다른 여러 방법으로 이 거대한 문제를 돕기 위함이었다”고 했다.⁴⁵⁾ 그리고 〈한국평론〉에 기고한 글은 아래에 번역해서 인용한다.

“..... 가장 필요한 것이 교과서이다. 이와 관련해서 고무적인 점은 최근 외국인과 한국인들이 함께 국민교육회(the Korean Educational Association)라 불리는 단체를 만들고, 상당수의 위원회를 임명해 명명법(nomenclature) 제작에 착수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이다. 각 위원회는 특정 교과목을 담당

41) 「국민교육회 규칙의 개요」, 『大韓每日申報』, 1904.9.9.

42) 최기영, 「한말 국민교육회의 설립에 관한 검토」, 『한국근현대사연구』 1, 한국근현대사학회, 1994, 29면.

43) 최기영, 앞의 논문, 62면.

44) 「教育會引繼」, 『大韓每日申報』, 1907.12.17.

45) Hulbert,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 2, Routledge & Kegan Paul, 1962, p.371; 마도경·문희경 공역,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 리베르, 2009, 507~508면에서는 국민교육회를 “조선교육회”라 번역했다.

하여 각 과목에 해당되는 전문 용어의 색인을 잠정적으로 만든다. 이를 총회에서 보고하고 논의한 뒤 개정하여 모든 과학 교과서에 사용될 표준으로 채택할 것이다. 이것은 철저하고 보수적이며 과학적인 계획으로써 미래의 혼란과 시간, 에너지 낭비를 막을 수 있다.”⁴⁶⁾ [필자가 번역 및 밑줄 표기함]

눈에 띄는 것은 국민교육회가 한국인과 외국인을 아우르는 단체였다는 점이다. 실제로 국민교육회 규칙에서는 통상회원으로 “본국인 남녀 중 이십 세 이상과 품행이 단정한 자를 허입”했고, 특별회원은 “외국인 남녀 중에 학식이 고명하고, 대한국민의 교육을 위해 마음을 모으고 상기하는 자를 연입”한다고 하여 이 단체가 외국인과 한국인의 연합임을 확실히 밝혔다.⁴⁷⁾

이들이 함께 만들고자 했던 命名法과 용어색인은 새로운 지식이 담긴 문헌을 번역하거나 활용하는데 필수적인 도구이다.⁴⁸⁾ 외래 신조어를 번역할 때는 이를 표준화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허재영은 헐버트 시리즈에서 보이는 용어색인이 『독립신문』에서 國文 위주의 글쓰기와 띄어쓰기를 주장했던 것, 주시경이 ‘말의 法式’과 玉篇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보았다.⁴⁹⁾ 국민교육회 회원들 다수가 전 독립협회 회원이었기 때문에 『독립신문』에서 시작된 한글 사용 논의를 계속 이어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개혁적 성격을 띤 한국 지식인들과 미국 선교사-교육가들이 모여 단체를 조직하고 용어 통일을 위해 명명법을 계획했다는 것은 당시 민간영역에서 근대 지식 수용을 위한 노력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다만 위 인용문에서 헐버트가 언급한 “총회(a general meeting)”가 무엇인지는 확실하지 않는데, 국민교육회의 조직이 잘 짜여 있었던 것을 보면 이 단체에서 소집한 총회를 말하는 듯하다. 임원진으로 회장 1인, 부회장 1인, 회계 2인과 회계감사 1인, 서기 2인, 편집위원 10인을 두었으므로,⁵⁰⁾ 앞에서 인용한 헐버트의 기사에서 “상당수

46) Hulbert, “The Educational Needs of Korea,” *The Korea Review*, Vol. 4, 1904, p.448; 허재영, 앞의 2020 논문, 253면에서도 이 글을 인용했지만 국민교육회를 “한국교육협회”라 번역했다.

47) 「국민교육회 규칙의 개요」, 『大韓每日申報』, 1904.9.9.

48) 명명법(nomenclature)이란 생물, 광물, 화합물, 원소 따위를 학술적으로 분류하기 위해 이름을 부여하는 일정한 방식이며, 보통 국제적 규약에 따른다(고려대 한국어 대사전 참고).

49) 허재영, 앞의 2019 논문, 254면.

의 위원회를 임명해 명명법(nomenclature) 제작에 착수하는 바람직한 방식을 취했다”는 것은 이들 10인의 편집위원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이 인용문 뒷부분에서는 편집위원에 대한 설명과 그들이 만든 명명법이 조선 정부의 學部를 통해 관립학교에서 활용될 가능성까지 언급되었다.

선발된 위원회는 너무 대표적인 인물들이라 현지인[한국인-역자 주]의 편견으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단체(the society)에 의해 수정된 그들의 결론은 전반적으로 합리적으로 요구될 수 있는 이상적인 기준에 근접하며 의지할 만하다. 이제 학부(the Educational Department)에서 도교대를 졸업한 경쟁력 있는 고문을 임용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국민교육회에서 채택한 명명법이 모든 관립학교에서 활용될 것이라고 확실히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굉장한 추동력을 얻을 것이다.⁵¹⁾ [필자가 번역함]

여기서 언급된 위원회가 무엇이었는지, 누구를 지칭하는지 아직 구체적으로 알 수는 없다. 하지만 이들이 명명법이나 외래신조어 표기 방식을 표준화하는 작업이 쉽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하다. 외국인 선교사들은 한국 지식인보다 한글(언문)에 큰 가치를 부여했고, 한국인들 사이에서도 표기법에 대한 입장이 갈렸기 때문이다. 아마 누구에게 어디까지 신지식을 공유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생각이 달랐을 것이다. 게다가 국한혼용문 대 순 한글의 문제로도 의견이 대립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헐버트는 당시의 어려움을 “표기법 개혁(Spelling Reform)”이라는 글에서 자세히 설명했다.⁵²⁾

헐버트와 함께 표기법 개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순 한글체를 지향하며 당시 표기법에서 몇 가지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고 표준화시키면 읽기와 쓰기가 훨씬 수월해질 것이라고 보았다. 당시 ‘자, 자, 즈’ 처럼 동일한 발음을 표기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였기 때문에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을 제안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헐버트는 이를 위해 ‘아래 으’의 탈락도 주장했던 것 같다.⁵³⁾ 하지만 표기법 표준화와 순 한글 사용

50) 「국민교육회 규칙 연속」, 『大韓每日申報』, 1904.9.10.

51) Hulbert, 앞의 1904 책, pp.448~449.

52) Hulbert, 앞의 1904 책, pp.385~393.

53) Hulbert, 앞의 1904 책, p.391.

에 반대하던 사람들은 한국어에 동음이의어가 많으므로 한자를 표기해서 그 의미를 나타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한문 없이 한글만 써 놓으면 전체 맥락에 의해서만 그 단어의 뜻을 유추해야 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었다. 게다가 한글 표기법의 가장 큰 단점은 모음의 장단음을 구분할 방법이 없다는 주장도 있었다. 그 외에 각지 방언의 발음 차이 때문에 생기는 어려움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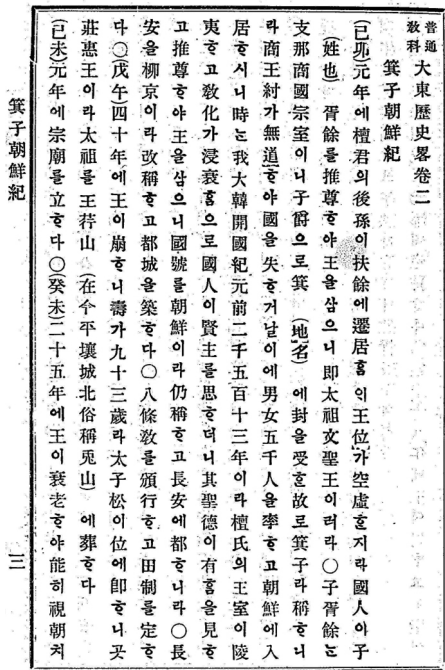
이 표기법에 대해서는 선교사들 사이에서도 논쟁거리였다. 한국인들이 어려서부터 자연스럽게 체득한 고유의 모국어(韓語)를 외국인들 맘대로 바꿀 권리가 있느냐는 문제가 지적되는 한편, 순 한글 문장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지 않으면 같은 문장을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할 여지가 생긴다는 지적(이미 수년 전 독립신문에서 제기된 문제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세로쓰기 대신 가로쓰기를 시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었다.⁵⁴⁾

한국어 표기법에 대한 견해 차이가 쉽게 좁혀지지 못했는지, 결국 선교사들과 한국 지식인들은 서로 다른 방식으로 교과서를 저술했다. 국민교육회에서 발행한 교과서는 국한혼용문으로 쓰였고, 내용 면에서도 애국을 강조했던 것이 학부 발행 교과서와 비슷했다. 반면 헐버트 시리즈 교과서들은 순 한글을 지향했고, 용어색인 또는 字典을 부록으로 추가하는 등 용어와 표기법의 표준화를 위해 노력한 흔적이 보인다(〈그림 7.8〉 참고). 그리고 혁신적인 것은 앞서 보았듯 헐버트 시리즈 수학 교과서들이 가로쓰기로 발행되었다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산학신편고등』의 전신 『산술신편』(1902)은 국내에서 가로쓰기로 편집된 최초의 수학교재였다.⁵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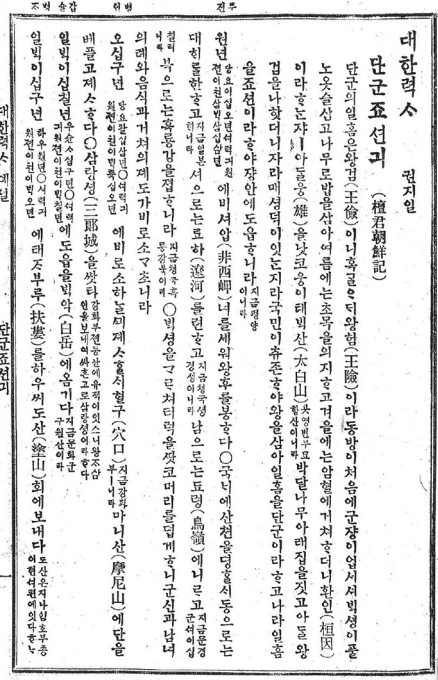
위에서 논의한 내용으로 보아 헐버트 시리즈가 기획된 배경에는 국민교육회와의 교류도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헐버트와 시리즈 저술에 참여한 선교사들 모두가 국민교육회에 참여했는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하지만 게일과 헐버트가 국민교육회의 특별회원으로서 한국인 회원들과 교류했고, 교과서 발행을 위해 한국어 표기법과 외래 신조어의 명명법, 용어색인 문제로 치열하게 고민했던 것은 분명하다. 헐버트가 기대했던 대로 국민교육회에서 채택한 명명법이 모든 관립학교에서 사용되었는지도 알 수 없다. 헐버트 시리즈 교과서에 수록된 색인이 국민교육회의 명명법을 반영한 것이라면, 그 색인에 등재된 용어들이 국민교육회에서 발행한 교과서에도 쓰였는지 대조할 필요가 있다.

54) Hulbert, 앞의 1904 책, pp.440~442, 539~540.

55) 한영균, 앞의 논문, 234면.



〈그림 7〉 國民教育會, 『大東歷史略』(1906)



〈그림 8〉 헐버트, 오성근, 『대한력소』(1908)

4. 헐버트의 실리 추구

헐버트가 교과서 시리즈 출판을 위해 서화와 계약을 맺으면서 지불하기로 했던 자금은 그의 사비였을까, 아니면 그를 고용했던 학부에서 지원해 주었던 것일까? 헐버트가 가족과 친구에게 보낸 서신에는 그가 교과서 출판을 위해 자신의 사비 15,000달러를 투자했던 정황이 드러난다.⁵⁶⁾ 또한 그는 부모님께 “연간 30%의 이익이 보장된 교육사업에 지금 당장 몇천 달러를 넣을 수 있습니다. 다섯 권 각각의 책을 다른 출판업자에게 넘겼고, 지금 두 권이 제 책상에 있습니다.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을 모두 꺼내서 모든 선교단체가 인정한 책들에 쏟을 계획입니다”라고도 했다.⁵⁷⁾

56) “In regard to the Hulbert Series or school text-books, it was a series that I financed but of which I did not write many of the books.” 김동진, 앞의 책, 2010, 88, 91면 자료 재인용.

57) 헐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1907. Mar 8), 3-008785-369. 독립운동가자료 헐버트서신류 3-008785-

이처럼 헬버트는 교과서 시리즈를 수익성 있는 사업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일찍이 『스민필지』와 수학교과서를 저술하여 상당한 판매를 경험했고, 『大東紀年』(1903)으로 당시 600엔 이상의 수익을 보았다면서 “막대한 양의 교과서 주문이 들어와 그 책으로 벌어들일 이윤으로 멋진 생활을 할 단꿈에 젖어있다”고도 했다.⁵⁸⁾ 사범학교 재직시절 교과서 출판 경험을 통해 교과서 시장의 잠재력을 파악한 듯하다.⁵⁹⁾ 특히 1905년 고종의 미국 특사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관립중학교 교사직을 사임한 뒤 고정 수입이 없어지자 그 대안으로 교과서 사업을 구상했던 것이 아닐까 싶다.

흥미로운 사실은 동료 선교사들이 교과서 출판을 비즈니스로 인식하지 않았던 덕분에 헬버트가 이익을 취할 수 있었다는 점이다. 앞 절에서 설명했듯이 헬버트 시리즈를 저술한 선교사들 대부분은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 소속이었다. 이들 선교사와 번역조사의 인건비는 선교부에서 부담했으므로 출판비용 중 원고비는 해결된 셈이었다. 그런데 선교사들은 “어떤 로열티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책이 사용되고 있는지 알기 원했다(아래 인용문 참고).” 따라서 헬버트는 오로지 인쇄 및 발행비만 투자하여 이윤을 취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구상한 뒤 사회와 계약했던 것이다. 당시 그가 부모님께 보낸 서신을 인용한다.

저는 두세 군데의 한국 학교의 교과서를 발행하는 일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아주 많은 수요를 요구하는 일이지요. 저의 가이드북은 9월 10일까지는 발행되어야 하고 그 책은 모든 면으로 볼 때 1월이 되기 전까지 2000권 이상 팔릴 거라는 확신이 듭니다. 저는 또한 초급 지리학을 만들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곳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위한 교과서들을 출판하는 일을 하려고 합니다. (원본누락) 은 모두 준비되어 있고 저는 출판사업에 자금을 조달하여 이윤을 창출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람들은 어떤 로열티도 요구하지 않고 다만 그들의 책들이 사용되고 있는지를 알기 원합니다. 저는 최저 생활 임금을 창출할 수 있는 책들에 투자함으로써 기초를 다질 것이고, 이 곳의 사람들은 그것이 매우 유용하게 될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모든 방면에서 저를 도와줄

229. 이하 헬버트 서신류는 <https://search.i815.or.kr>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 헬버트에서 참고함.

58) 헬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연도미상-1904년 추정, Jul. 3.)

59) 강세영, 「헬버트의 교육 관련 활동 연구-그의 서신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48~55면 참고.

것입니다. 만약 제가 재산의 일부를 판다면 저는 이 교과서 사업에 많은 돈을 투자할 것입니다.⁶⁰⁾ [밑줄 필자]

헬버트가 서회와 맺은 계약으로 취했던 이윤은 적지 않았다. 앞서 인용된 계약서에서 보았듯이 헬버트 시리즈 판매로 발생하는 이윤은 서회가 취할 수 없었다(각주 37번 참고). 1908년 이전까지 시리즈 판매누적액은 5,880.91엔이었고⁶¹⁾ 1909년 헬버트가 잠시 내한했을 때 서회에서 헬버트 몫으로 계산한 순이익은 10,680엔이었다.⁶²⁾ 1911년 당시 서회 전임총무의 1년치 봉급이 2,400엔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상당한 액수이다. 기존 연구자들은 헬버트가 시리즈를 기획한 동기로 고종의 부탁이나 사범학교와 관립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교과서를 개발해야 했던 상황, 그리고 헬버트의 교육관을 들었다.⁶³⁾ 하지만 분명 그가 교과서 출판을 사업의 기회로 여겼던 현실적 동기도 작용하고 있었다.

이처럼 실리를 추구했던 헬버트의 모습은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한” 독립운동가이자 교육가로 알려진 그에게 어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초기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보였던 “장사하는 성향”은 이미 류대영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⁶⁴⁾ 그에 의하면 19세기 말 20세기 초 내한한 미국 선교사들은 주로 중산층 출신이었으며 전문직업, 소비지향적 가계지출, 안락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자발적 사회봉사활동, 다양한 여가 활동을 공통으로 향유하는 집단이었다.⁶⁵⁾ 이들은 “사막 속 오아시스” 같은 선교구내에 거주하며 미국 중산층 가정의 생활방식을 그대로 옮겨와 당시 조선에 진출했던 다른 서양인들에게 선망과 질시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면서 한국인들에게 미국의 주류 개신교와 중산층 문화를 전할뿐 아니라 자본주의적 가치관을 직·간접적으로 드러낼 수밖에 없었다.⁶⁶⁾ 그러한 가치관은 당시 미국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60) 헬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날짜 미상-1905년 추정).

61)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Annual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11, p.13. 시리즈에 해당되는 책 정가가 한 권당 0.3~2.5엔으로 다양했던 것을 고려하면, 평균 권당 0.75엔으로 계산했을 때 1906~7년 2년간 대략 7,841권을 판매했다는 이야기다.

62) 헬버트가 메이에게 보낸 편지(1909.9.9), 3-008785-402.

63) Hulbert, Weems ed.; 허재영, 앞의 2019 논문, 246면; 오지석, 앞의 논문.

64)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220~240면에 구체적인 사례들이 있다.

65) 류대영, 앞의 책, 26면.

광산·목재 등 여러 경제적 이권에 개입하거나 의약품, 식료품, 가정용품, 농기구 등 미국 상품을 소개하고 판매하거나 자본주의적 노동관을 한국에 전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

헐버트의 행적은 당시 미국인들의 자본주의적 성향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례로 그는 1902년경 한국에서 『東國文獻備考』 112권을 85달러에 구매해 사람을 고용하여 필사한 뒤 이 필사본을 뉴욕의 자연사 박물관에 145달러를 받고 판매했다.⁶⁷⁾ 그리고 원본은 1903년 영국 런던에 들렀을 때 대영박물관 도서관에 300달러를 받고 판매했다.⁶⁸⁾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그가 가족에게 보낸 서신에서만 드러날 뿐, 회고록 같은 공식 문서에서는 같은 사건을 언급하면서도 이윤을 취한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⁶⁹⁾ 몇십 년이 지나서 쓴 회고록보다는 사건 당시 기록한 서신이 더 신뢰할 만한 사료일 것이다. 헐버트가 정부 교사로 받던 월급 외에 부동산 투자와 골동품 판매로 이윤을 취했다는 점은 다른 연구자들도 언급한 바 있다.⁷⁰⁾ 주로 자신이 살던 집이나 토지를 벨기에 공사관과 조선 정부, 미국, 이탈리아 정부에 매매하는 식이었는데, 다른 외국인과 달리 한국어에 능통하여 건물 공사가 수월했던 그의 수완 덕분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의 서신에 부동산과 관련된 언급이 많다.⁷¹⁾ 그 외에도 헐버트는 한국에서 가져간 병풍과 장롱을 뉴욕의 어느 박물관에 매매하려 했고,⁷²⁾ 보석상 티파니(Tiffany's)사에 한국에서 가져간 진주를 팔기도 했다⁷³⁾. 기타 외신에 한국 관련 기사를 기고하는 등 헐버트가 대외활동으로 벌어들인 수입도 상당했다. 그렇게 번 돈을

66) 류대영, 앞의 책, 57~62, 211면.

67) 헐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연대미상), 3-008785-263; (1902.8.13), 3-008785-256.

68) 헐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1903.2.8), 3-008785-273.

69) Hulbert, 앞의 2000 책, p.240. "I deposited in The British Museum Library a set of the great Korean cyclopaedia, The Mun-hon Pi-go, in 112 quarto volumes, together with a set of maps of all the prefectures in Korea, drawn on a scale of about half an inch to the mile."; Hulbert, 앞의 1962 책, p.ED43. "[He] presented a set of the distinguished Korean encyclopedia, the Tong'guk Munhon Pigo(1770) to the British Museum in London," 헐버트의 전기를 서술한 워즈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면서 헐버트가 책을 판매했다는 사실은 몰랐는지 언급하지 않았다.

70) 류대영, 앞의 책, 238~239면; 강세영, 앞의 논문, 55~61면 참고.

71) 헐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1901.3.10.); (1901.12.15.); (1902.10.12.); (1902.11.9.); (1905.1.3.).

72) 헐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1906. Feb. 날짜 미상), 3-008785-360.

73) 헐버트가 부모에게 보낸 편지(연대 미상), 3-008785-436.

가족, 특히 미국에 계신 부모님께 자주 송금했고, 앞서 인용한 대로 “다른 곳에 투자한 돈을 모두 꺼내 선교단체가 인정한 책들에 쏟을 계획”을 세울 만큼 자본도 상당히 축적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가 헐버트 시리즈를 위해 투자한 금액이 15,000달러였다고 하니⁷⁴⁾ 그 당시 환율로 계산하면 상당한 액수였을 것이다.

그간 학자들이 미국 선교사들의 이윤 추구 성향을 거의 주목하지 않았듯이, 헐버트를 연구했던 학자들도 그의 사업가적 면모를 주목한 경우는 거의 없었다. 오직 강세영만이 헐버트가 한국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했다는 기존의 평가가 지나친 과장이라는 비판적인 시각을 보였다. 한 사람의 삶에는 여러 정체성과 다양한 면모가 얼마든지 혼재할 수 있으며 특히 헐버트처럼 오랜 기간 다양한 활동을 펼친 인물은 더욱 종합적이고 균형잡힌 시각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 헐버트가 교과서 출판을 시기적절한 사업의 기회라고 인식했던 것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아시아를 찾았던 미국인들에게서 흔히 볼 수 있던 사업가적 면모였다.

IV. 결론

헐버트 시리즈는 개화기 신지식의 교육과 번역을 주도하던 이들이 마주해야 했던 문제들, 즉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를 고민하는 과정에서 발생했던 한국어의 변화상을 고스란히 담아낸 자료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가치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 전모가 밝혀지지 않은 채 일부 교과서만 개별적으로 논의될 뿐이었다. 이에 필자는 헐버트 시리즈에 관한 기초자료의 결핍을 보완하고, 선행연구보다 폭넓은 사료에 기반한 실증적 연구를 위해 해외 도서관에 소장된 사료와 실물 교과서를 수집하는 등 노력을 기했다. 특히 헐버트 시리즈 저술에 참여했던 선교사 및 개신교계 기관들의 1차 자료와 한국 정부 자료 및 신문을 골고루 활용하여 선행연구와 변별되고자 했다. 그 결과 헐버트 시리즈의 출판을 담당했던 예수교서회의 書目(1911, 1912)을 근거로 그동안 추정에 그쳤던 헐버트 시리즈 13종의 전모를 밝혀내고, 헐버트가 시리즈 제작을 위해 예수교서회와 맺었던 계약서와

74) 김동진, 앞의 책, 88면 재인용.

정황도 소개할 수 있었다. 게다가 헬버트 시리즈 교과서 실물 12종을 수집했을 뿐 아니라 번역된 교과서의 경우 원문까지 수집함으로써 향후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연구 결과 헬버트 교과서 시리즈는 헬버트 한 사람의 기획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를 둘러싼 여러 집단의 이해관계 속에서 공동의 노력을 통해 점진적으로 탄생한 결과물이었다는 사실을 실증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으며, 그 기획 배경 또한 네 가지로 분석했다. 첫째, 헬버트가 조선 정부에 고용된 교사로서 『스민필지』를 저술한 이후 學部의 교과서 출판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던 경험이 교과서 시리즈 기획의 근간으로 작용했다. 둘째, 1905년 개신교계 연합운동이 시행되면서 예수교사회가 연합출판사 역할을 맡게 되었고, 미국 북장로회 선교부가 서울과 평양에서 감리회와 함께 주도했던 연합교육사업이 선교사들에게 교과서 집필의 계기를 제공했다. 셋째, 헬버트가 國民教育會라는 애국계몽운동 단체와 함께 한글 표기법 개정과 교과서에 쓰이는 과학기술용어의 통일방안을 의논했던 것도 중요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넷째, 헬버트가 교과서 출판을 수익성 있는 사업의 기회로 인식하고 이윤을 추구하려 했던 개인적 동기가 작용하고 있었다.

특히 본 논문에서 새롭게 발굴한 사실로, 을사늑약 이전부터 교과서 편찬을 위해 국민교육회라는 단체에서 한국 지식인과 외국인들이 집단적으로 교류·협력했다는 사실은 의미심장하다. 그것이 시사하는 바, 즉 외국인들이 내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나 상당한 수준의 한국어와 문화를 습득하면서 한국 지식인과 함께 근대식 교과서를 직접 저술 및 번역할 수 있게 된 정황과 더불어 한국 지식인들이 중화주의 교육에서 이탈하여 서구식 근대 교과를 적극 수용하게 된 변화, 그리고 일반 대중에게 교육의 기회가 열리고 이들을 위해 순 한글 교과서들이 저술되던 변화는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의의가 클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중대한 작업을 수행하던 그들 앞에는 넘어야 할 산이 많았던 반면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았다.

참고문헌

『高宗實錄』

『大韓每日申報』

『大韓帝國 官報』

『皇城新聞』

독립운동가자료 헬버트서신류 <https://search.i815.or.kr> 콘텐츠>독립운동가 자료>헬버트

Hulbert, Homer B. “Spelling Reform,” *The Korea Review* Vol. 4, 1904

_____. “The Educational Needs in Korea,” *The Korea Review* Vol. 4, 1904

_____. *Echoes of the Orient*, 선인, 2000

_____. Clarence Norwood Weems ed. *Hulbert's History of Korea*, Vol.1-2, London: Routledge & Kegan Paul, 1962

Minutes and Reports of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1903~1910

Report to the Annual Meeting of the PCUSA in Korea, 1908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06*, Seoul: The Methodist Publishing House, 1907

_____, *Annual Report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11

_____, *Catalogue of Books and Tracts*, Seoul: The Tract House, 1911, 1912

김동진, 『파란눈의 한국혼 헬버트』, 참좋은친구, 2010

내한선교사편찬위원회, 『내한선교사사전』,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22

류대영, 『초기 미국 선교사 연구(1884~1910)』,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1

이성전 저, 서정민·가미야마 미나코 공역, 『미국선교사와 한국 근대교육』, 한국기독교역사연구소, 2007

한국기독교역사학회, 『한국기독교와 역사 I』, 기독교문사, 2011

헬버트 저, 마도경·문희경 공역, 『한국사, 드라마가 되다』, 리베르, 2009

강세영, 「헬버트의 교육 관련 활동 연구-그의 서신 중심으로」, 한국교원대 석사학위논문, 2013

오지석, 「근대전환기 기독교계 학교 과학교과서 이해-평양 숭실대학의 과학교과서를 중심으로」, 『인문사회21』 12(1), 아시아문화학술원, 2021

이혜원, 「조선성교서회의 초기 간행물 재고찰」, 『한국교회사학회지』 55, 한국교회사학회, 2020

- 최기영, 「한말 국민교육회의 설립에 관한 검토」, 『한국 근현대사 연구』 1, 한국근현대사학회, 1994
- 한영균, 「대한제국기의 산학(수학) 교재류에 대한 기초적 연구」, 『한국문화』 73,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016
- 허재영, 「근대식 학제 도입 이전(1880~1894)의 학교와 교과서 연구」, 『한국언어문학』 87, 한국언어문학회, 2013
- _____, 「『스민필지(士民必知)』에 나타난 어문 의식과 근대 지식의 변화」, 『한국언어문학』 109, 한국언어문학회, 2019
- _____, 「근대 지식 수용 과정에서 헬버트 시리즈 교과서의 의의」, 『어문학』 147, 한국어문학회, 2020
- Yuh, Leighanne Kimberly. “The Royal English Academy: Korea’s First Instance of American-Style Education and the Making of Modern Korean Officials, 1886~1894,”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5, No. 1, 2015
- _____. “Loyalty to the King and Love for Country: Confucian Traditions, Western-Style Learning, and the Evolution of Early Modern Korean Education, 1895~1910,”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Vol. 19, No. 2, 2019

Unveiling and Contextualizing the Hulbert Educational Series

Lee, Goeun

The Hulbert Educational Series, published by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since 1905, holds great significance as it sheds light on the endeavors made by various groups to modernize education during the Korean Empire. Despite its value, the complete list of textbooks in the Series has remained unknown. To address this gap, I have supplemented primary sources that previous researchers overlooked, obtaining the Catalogue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1911, 1912). This catalogue contains detailed information about the thirteen textbooks in the Series, along with the contract signed by Mr. Hulbert and the Society to produce the Series. Through my research, it has become evident that the Series was a collaborative effort involving several interest groups associated with Hulbert, rather than a project solely undertaken by him. Furthermore, I have contextualized the background of the Series in four distinct ways. Firstly, Hulbert's educational experience at government schools served as the foundation for his involvement in textbook publication with the Educational Department. Secondly, the unity movement within the Korean Protestant community in 1905, the transition of the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into a joint publishing house, and the united educational project in Seoul and Pyŏngyang led by the Korea Mission of the Presbyterian Church in the USA and the Methodist Episcopal Church provided favorable conditions for missionary-educators to compile textbooks. Thirdly, Hulbert's participation in the Korean Educational Association and their discussions on Korean spelling and the unification of nomenclature for textbooks played a significant role. Lastly, Hulbert's recognition of textbook publishing as a lucrative business opportunity contributed to his personal motivation to pursue profit in this venture.

Key Words : Hulbert, textbook series, Korean Religious Tract Society, Korean Educational Association, modern knowledge, print culture